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22 >

파워 상실은 강주영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봅니다.

강주영 머리 속에도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강주영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네?

타격폼입니다. 오늘 강주영은 평소보다 훨씬 깊은 테이크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평소보다 더 강하게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강하게 치려고 한다는 것은 평소보다 힘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아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책임질게 아무것도 없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로잔스 팬으로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강주영이 없는 올시즌 트로잔스는 어떻게 될까요?

음..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쉽지않다고 봐요. 강주영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화력이 많이 다운됩니다.

트로잔스에는 선우영이라는 훌륭한 테이블세터가 있기에 효율적으로 득점하기 위해선 쓸만한 중심타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강주영도 필사적으로 해답을 찾고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그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강주영의 나이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은 분명 쉽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주영이 올해는 힘들거라고...

그렇군요.

아. 네. 그런데...

램스도 중심타자가 필요한가요?

네.넛?!!!! 래...램스요?! 갑자기 램스는 왜...?

글쎄요? 왜냐요?

아...

그냥 잘난척하며 주절주절 말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램스가 생각났다고 칠까요?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Music concert

미리 들려주는 이소라 가을 앨범 수록곡

●이소라 '여섯번째 봄' | 5월18~21일·25~29일·6월9~12일 | 서울 이화여대 삼성홀 | 120분

2012년 '다섯 번째 봄' 이후 4년 만에 벌이는 시즌 공연. 2007년 시작된 '봄' 콘서트는 '봄에 열린다', '본다'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이소라 공연은 화려한 무대장치는 배제하고, 오롯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유명하다. '첫 번째 봄' 공연부터 연출을 맡은 함윤호 감독은 "이소라 공연은 무대연출이나 다른 요소들이 노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름다운 빛과 색으로 가득 찬 공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을에 발표될 앨범 수록곡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이소라는 "이름처럼 계절마다 돌아오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오래 기다려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피아노 이승환, 기타 홍준호 임현일, 드럼 이상민, 베이스 최인성 등 실력을 인정받은 유명 연주자들이 이소라를 위해 밴드를 이뤘다. 문의 1544-1555.

장혜진의 신곡, 라이브로 듣는 첫 번째 무대

●장혜진 '소품집 위드 윤석철트리오' | 5월20~22일 | 서울 서교동 롯데카드 아트센터 | 120분

작년 10월 벌인 '소품집' 콘서트의 두 번째 앙코르. 장혜진의 소품집 공연은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로 윤석철을 주축으로 콘트라베이스, 드럼, 기타 등 4인조와 앙상블을 이뤄 자신의 히트곡들을 재조명한다. 공연에 찬사가 쏟아지자 작년 12월 앙코르 공연을 펼쳤고, 계속된 요청에 이례적으로 두 번째 앙코르 공연을 마련했다. 장혜진의 짙고 풍부한 감성의 목소리, 작은 공간 속 최소한의 악기 편성, 실력 있는 연주자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아늑한 시간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오롯이 음악만이 담길 작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장혜진의 가장 감성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장혜진은 지난해 콘서트에서 윤석철과 함께 재해석한 히트곡과 신곡이 담긴 스페셜 앨범 '소품집'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곡의 라이브 무대도 처음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5-0314.



바비킴, 초심으로 돌아가 팬들 앞에 다시 서다

●바비킴 '처음처럼' | 5월20~22일 |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 | 120분

바비킴이 초심으로 돌아가 기획한 소극장 공연. 작년 1월 기내 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바비킴은 "음악을 처음 하던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숙의 의지를 드러냈고, 그해 12월 소극장 공연을 벌였다. 이번 공연도 그 '초심'의 연장선이다. 제목도 '처음처럼'이다.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새로움과 설렘의 의미가 공존한다. 바비킴은 "처음 음악을 시작하던 그때,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서 처음 팬들을 만났던 그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채, 초심으로 돌아가 팬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음악을 보여주겠다"고 소개했다. 땀뻑히 부르는 노래로 사람들의 감성을 묘하게 자극시키는 매력을 가진 바비킴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에 귀 기울이며 함께 초심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문의 1644-9496.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 새 앨범

●비온세 '레모네이드'

여섯 번째 정규앨범. 켈트릭 라바, 위켄드, 잭 화이트, 제임스 블레이크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했다. 12곡, 1시간 분량의 비디오프로젝트 '비주얼 앨범'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세계관을 반영한 1시간 남짓의 '레모네이드' 뮤직비디오는 미국 HBO '월드 프리미엄 이벤트'를 통해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발표와 동시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첫 앨범부터 6장의 모든 앨범을 빌보드 1위에 올려놓은 최초의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레모네이드'라는 앨범 제목은 "만약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들 어내라"라는 서양 격언에서 비롯됐다. 소니뮤직.

●그레고리 포터 '테이크 미 투더 앨리'

2014년 그래미 최우수 재즈보컬 앨범 수상 경력으로 두 번째 내놓은 스튜디오 앨범. 전작 '리퀴드 스피릿'에서 재즈를 기반으로 스윙 리듬부터 발라드 넘버까지 다양한 음악을 보여줬다면, 이번 앨범에선 재즈라는 장르에 한층 더 다가간 음악을 들려준다. 특히 가족을 위한 노래가 많다. '돈트 루즈 유어 스미'는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고, '테이크 미 온 더 앨리'는 어린 시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했던 어머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만든 곡이다.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발라드 넘버 '모어 덴 어 우먼' '콘서트 오브 러브'도 감미롭다. 유니버설뮤직.

Biz gallery

스타벅스, 바리스타 학자금 지원

스타벅스가 바리스타들의 4년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학사학위 취득을 돕는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0일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학술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파트너(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학사학위 취득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스타벅스 8600명의 파트너 중 학사학위 미소지자들은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스타벅스와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올 하반기부터 학기당 최대 150명(연간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평균 B학점 이상 취득하는 모든 파트너에게 '스타벅스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오비맥주, 협력업체 동반성장 다짐대회

오비맥주는 10일 경기도 이천공장에서 맥주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 대표들과 함께

'오비맥주·협력업체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열고 주류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맥주 원재료와 포장재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130여 명이 함께 했다. 오비맥주는 공장 견학 등을 통해 맥주의 원재료 납품부터 생산, 물류, 유통까지 맥주의 제조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 시스템을 안내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영전략, 실행방안을 소개했다.

탐앤탐스, '골목상권 상생 대상' 수상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김도균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골목상권 상생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탐앤탐스는 평소 지능인과



중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업 중 유일하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소상공인과 상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수상의 기쁨이 남다르다.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골퍼퍼팅, 집에서 실감나게 즐긴다

KT는 실감형 헬스 테인먼트 홈사물 인터넷(IoT) 서비스인 '기가IoT 헬스 골퍼퍼팅'(사진)과 최대 8가지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기가IoT 헬스 체중계' 3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스 골퍼퍼팅은 실제 그린 컨디션



을 옮겨 놓은 듯한 실감형 골퍼퍼팅 서비스이다. 초당 10만회 감지가 가능한 적외선 센서 60개가 기기 내에 포함돼 골퍼퍼팅 시 정확한 속도, 방향,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헬스 체중계 3종은 균형 잡힌 신체 체성분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SKT, 가족 커뮤니티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은 12일 가족 커뮤니티 서비스 '케이코'를 출시한다. 가족 고객이 등록만 하면 매월 최대 1000MB 데이터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족나눔데이터' 혜택도 신설한다. 케이코는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가족 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연동을 통해 '가족간 위치·시간 메시지'와 '사진·일정 공유 기능', '나들이 정보'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단 타사 고객은 위치메시지 수신과 가족나눔데이터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된다. SK텔레콤은 출시를 기념해 31일까지 앱 다운로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초대, 기프트콘 증정 등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쿠팡, 31일까지 여름 가전 기획전

쿠팡은 이달 31일까지 '여름 가전 기획전'을 실시한다. 선풍기, 냉풍기, 에어컨 등 가정과 사무실, 영업용 매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름 냉방 가전 60여 종(사진)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냉방과 공기 정화 기능을 모두 갖춘 2in 1 에어컨,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에어 서큘레이터 등 최근 인기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했다. 대표 제품인 '삼성전자 이동식 에어컨'은 별도 설치작업 없이도 주방, 침실, 공부방 등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28만원대의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